

새만금 하늘길로 새천년 전북시대 연다 상용차, 전북에서 친환경·미래형으로 발돋움

새만금 국제공항·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의미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 크고 전북경제 획기적 체질 개선 기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 새만금이 국제공항을 마련해 동북아 물류 기지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아울러 지역경제 회복을 이끌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사업을 육성하고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전북도민의 50여년 묵은 염원을 해소하고 미래성장 동력도 확보할 수 있는 전북의 최대 경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예타 면제는 공항 건설을 확정하는 동시에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우리 도민이 50여년간 바랐던 숙원사업이자 도민의 간절한 열망이 담겨있는 최대 현안이 해결된 것"이라며 "국가적으로도 새만금이 환황해권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1968년 전주 송천동 군비행장에서 김포와 제주노선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떠난 지 50년 만에 나왔다. 김제공항이 공사 계약과 보상까지 완료하고도 2004년 사업이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지 15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

전북의 공항 건설은 그간 여러 차례 검토됐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2008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됐는가 하면,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공항부지가 반영됐지만 그간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도는 민선 6기 전북 도정 출범과 함께 새만금의 성공과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공항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전북도는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계획을 반영한 바 있다.



상용차 산업 육성 효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연설하고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항공 수요를 조사한 결과, 새만금 개발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도 예상 이용객이 2025년 67만명, 2055년 133만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새만금 개발 효과를 반영하면 2025년 94만명, 2055년 2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전북도가 공항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새만금의 최종 목표와 맞물려 있다.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역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항로(航路)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항 건설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촉진해 생산·부가가치 효과를 이끌어내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파급 효과를 낸다는 복안이다.

나아가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 새만금사업의 성공, 농생명산업, 연기금을 특화한 금융 중심 도시로 성장, 대한민국 여행 체류 1번지 육성에 따른 관광객 유치 등 전북도의 핵심과제에 성과를 내고 국가 균형발전을 구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연구원은 공항 건설 기간 전북지역에서만 약 1조5천433억원의 생산·부가 가치와 8천483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건설 완료 후에도 종사자 및 투자유치 등으로 인한 일자리와 생산 부가가치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도청에서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로 이른바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 항만 철도) 물류체계를 완성해 동북아 물류 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사업이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에 대응해 미래형·친환경 상용자동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3년까지 5년간 1천930억원을 투입해 상용차 점프-업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실증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부품생산 집적지 육성 및 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인 상용차 점프-업 융복합 기술개발은 상용 전동화, 자율(군집)주행 핵심기술 및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을 통한 선제적 시장확보, 연비·동력성능·수송능력 향상 기술 등 상용부품 고도화 기술개발로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기술개발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장비구축을 통해 시험·실증을 지원할 공동연구(Co-LAB센터) 공간조성,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테크비즈 플라자 구축, 시제품 제작 등 기업 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친환경·미래형 상용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들 세부 사업들은 상용차에 첨단장비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자율군집주행 기술, 친환경 에너지 차량 개발 등의 상용화에 집중투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처럼 미래 상용차산업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4천866개가 만들어지고, 자동차·부품에서 8천446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오는 등 전북에 명실상부한 상용차의 미래형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6
C
Carbon
12.0107

탄소 소재란? 강철 무게의 1/5, 강철 강도의 10 배로 생황용경부터 항공 우주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최첨단 소재입니다.

탄소산업의 메카, 전라북도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합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탄소산업클러스터 등 주요 국가정책사업 추진으로
전라북도 탄소산업이 대한민국의
탄소산업으로 거듭납니다.

전라북도